

“1등 방송 달성하고 문화 콘텐츠 기업으로 거듭난다” 창사 25주년 기념식, 또 한 번의 더 큰 도약을 다짐하다



창사 25주년 기념식이 11월 13일(금) 오전 10시 목동 SBS방송센터 로비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세영 SBS미디어그룹 회장과 윤석민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이용모 SBS 사장, 채수현 노조위원장 등 임직원과 김수용 SBS 사우회 회장, 강영기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세영 회장은 격려사에서 오늘이 있기까지 애써준 임직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 뒤, 이제는 25년간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최고를 달성하자고 격려했다. 이를 위해 회사는 각종 제도를 손질하는 등 최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격려사 전문은 2면)

윤석민 부회장은 기념사에서 창사 25주년을 맞아 도전의 DNA를 다시 불러내 또 한번 도약할 것을 주문했다. 윤석민 부회장은 방송에 머무르지 말고 문화 콘텐츠 사업 전반에 도전할 것, 세계 일류 기업을 목표로 세계 시장에 나아갈 것, 또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모든 계층과 시간을 아울러 시청률 1위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할 것을 역설했다.(기념사 전문은 3면)

기념식은 정미선 앵커의 사회로 SBS 25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영상 소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각계 영상 축하 메시지와 축하 공연 등으로 무르익었고, SBS의 새로운 슬로건 공개에서 절정을 이뤘다. 윤석민 부회장이 대형 화면을 통해

새 슬로건 “함께 만드는 기쁨”을 공개하자, 정미선 앵커의 선창으로 임직원이 하나 되어 “함께 만드는 기쁨”을 외쳤다. “함께 만드는 기쁨”은 시청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SBS의 굳은 의지를 나타낸다.

기념식이 끝나고 곧바로 사진전 제막식과 다과회가 이어졌다. 1층 로비 남쪽 유리 벽면을 가리고 있던 막이 벗겨지며 모습을 드러낸 816장의 흑백 사진에는 제작현장과 대표 프로그램 등 SBS 25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뜻 깊은 날에 더 큰 감동을 선사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있었던 유공상, 우수부서 표창, 25주년을 기념하는 SNS 이벤트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유공상 (총 3팀)
기획본부 정책팀 이상진 차장대우, 경영지원본부 기술기획팀 조삼모 차장 (공동수상)
제작본부 예능1CP소속 박성훈 차장대우 / 드라마본부 드라마2EP소속 고희식 부국장
- 우수부서 표창 (총 5팀)
기획본부 제작리소스팀 / 제작본부 교양1CP / 제작본부 예능3CP
드라마본부 드라마운영팀 / 경영지원본부 아카이브팀
- 창사 25주년 기념 SNS 이벤트 수상자
1등 뉴미디어부 (스브스뉴스) / 2등 PR팀 / 3등 A&T 아트2팀(분장), 라디오2CP (호란의 파워FM)



임직원들이 하나가 된 만세 삼창



25년 발자취 사진전 케이크 커팅

재창업 각오... 공정·집념·헌신의 조직문화로 정상에 서자!

윤세영 SBS미디어그룹 회장 격려사



오늘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SBS 창사 25주년, 뜻 깊은 날입니다. 지난 25년을 돌이켜 보면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애써준 임직원 모두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사람 나이 스물다섯이면 건장한 청년입니다.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나이입니다. SBS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창업의 각오로, 스물다섯 도전과 패기로 몸을 던져 1등 방송, 톱 채널을 달성합니다. 25년간 역량을 축적했고 이제 1등을 성취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SBS가 1등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치열한 조직문화 창출이 절실합니다. 이기려면 과감해야 합니다. 톱이 되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창사 25주년 기념공연 이모저모



성악-신문희 "아름다운 나라"



축창-남상일 "사랑가"



사원 대표 25인의 사가 제창



서울바로크합주단 연주회 (바이올린 솔로 흥의연)

선공후사(先公後私), 정직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심 없고 공정한 척도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발탁하고 신상필벌(信賞必罰)이 분명할 때 조직은 진정으로 하나가 됩니다.

또, 조직의 성공은 앞장선 몇 사람만으로는 절대 이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조직원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끌고, 가운데서 힘을 모으고 뒤에서 밀어야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모두가 합심 협력할 때 그 총화가 폭발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옆 사람도, 아랫사람도 흥이 나서 잘할 수 있게, 서로 복돋우면서 배우고 가르치면서 함께 갑시다. 그것이 조직의 하모니고, 그래야 한 식구입니다.

공정과 집념, 헌신의 조직문화를 간부들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신나게 일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샘솟는 조직, 그런 조직이 되도록 간부들이 출선하자는 애깁니다. 간부들이 회의만 하고 지시만 해서는 깨어있는 조직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장을 함께 뛰고 생생한 소리를 들어야 조직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바탕에서 어깨동무하고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간부들은 쟁길 일도 많고 외부 접촉도 해야 하고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술 좀 덜 마시고, 골프도 덜 치고, 현업에 집중할 시간을 더 가지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단, 현장경영 한다고 시시콜콜 잔소리나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율성은 키워야 하니까요.

선택과 집중이란 말, 많이 합니다. 선택이 무엇인가? 버리는 것입니다.

한 우물을 제대로 파면 반드시 값진 열매가 나옵니다. 7조5천억 신약 수출의 신화를 쓴 한 제약회사 이야기가 세간에 화제입니다. 별동대 30명에게 13년간 한 가지 기술 개발에만 집중하게 한 리더십, 적자가 나도 연구 개발비를 줄이지 않은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 불모지 한국에서 이런 신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걸 결정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회장, 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본부장, 팀장이 책임을 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직원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일과 중에도 크고 작은 선택을 합니다. 치열하게 일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냅시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도하는 가운데서 큰 도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택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회사는 최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예 인력을 꾸준히 보강하고, 이런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게 평가제도와 포상제도도 손질하도록 할 것입니다.

SBS는 한 식구입니다. 우리 내부에 아군, 적군은 없습니다. 개인의 보람이 회사의 보람이고, 회사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입니다. 뽀뽀 뭉칩시다. 재창업의 각오로 모두가 하나 되어 ONE SBS로 나갑시다. 흥이 나게 일하고 무섭게 밀고 갑시다. 1등을 합시다! 스물다섯 살 건장함으로, 일심 협력하는 자세로, 최고를 달성합시다!

도전의 DNA를 불러내 'TV 밖으로! 세계로! 일등 SBS로!'

윤석민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기념사



도전의 DNA,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한 마디가 전부입니다.

도전의 DNA,
오늘의 SBS를 만든 단어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도전자였습니다.

25년 전 모두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듣던 시절 우리는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에 새로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도전자였기에, 남들이 그 한계를 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파격으로, 새로움으로, 공정함으로 국민에게 기쁨 주고 사랑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쟁은 전혀 없이 치열해졌습니다. 일등 콘텐츠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존재조차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뭘까요?

도전의 DNA를 불러냅니다. 이제는 TV가 TV 밖으로 나올 때입니다. 방송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문화 콘텐츠 기업이 됩시다.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을 알려주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것. 이것은 SBS가 25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이 일을 좁은 TV와 라디오에 가둬두지 맙시다. 우리만의 콘텐츠로 문화 콘텐츠 사업 전반에 도전합시다. TV를 오프라인과 연결하고 온라인과 커머스를 아우르는 것.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전의 DNA를 불러냅니다. 이제는 SBS가 세계 일류라는 것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스마트폰과 자동차로 세계를 누비는 우리나라 기업들처럼 우리의 콘텐츠를 가지고 세계인과 소통합시다. BBC가, 그리고 디즈니가 그랬던 것처럼 SBS 스스로가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지난 25년 동안 증명해 왔습니다.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우리의 힘, 어디에서 올까요?

도전의 DNA를 불러냅니다. 살아남기 위해 강해져야 했던 SBS인들의 몸속에는 그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리에 만족하지 맙시다. 일등 방송을 만듭시다. 모든 계층과 시간을 아울러 시청률 1위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합시다. 뉴미디어 환경에 맞추려 하지 맙시다. 누구보다 먼저 변화하는 지점에 가 있습니다. UHD, 모바일, Data기반 서비스에 최고의 역량을 갖추고 기획 단계부터 온라인과 모바일을 강화합시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고, 퍼트리기 쉬운 콘텐츠를 만듭시다.

낮선 땅. 그러나 기회로 가득한 땅을 보면 도전의 DNA를 가진 사람들은 가슴이 뛰니다. 그렇다면 아마 제게도 도전의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가슴이 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5년 우리 안에 쌓인 힘을 믿고 힘내서 갑시다. 망설이던 동료가 발맞출 수 있게 지금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TV 밖으로! 세계로! 일등 SBS로!'

좋은 날입니다. 축하할 날입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만 간직하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의 DNA를 불러냅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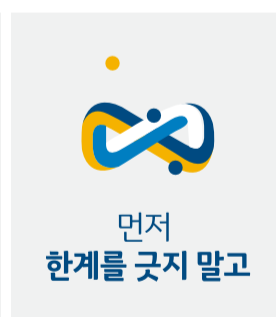
새로운 슬로건

함께 만드는 기쁨 SBS

2015년 11월 창사 25주년을 맞이하여 '내일을 봅니다 SBS'를 대체하는 새로운 슬로건 '함께 만드는 기쁨 SBS'를 공개합니다.

박웅현 크리에이터가 이끄는 TBWA와 공동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새 슬로건 '함께 만드는 기쁨 SBS'는, '건강한 방송으로 세상을 밝게 만드는, 기쁨 주고 사랑받는 SBS'의 철학을 더욱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고심한 결과로서,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선도하고 더 많이 재생산되고 더 많이 공유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생각의 스타터, Culture Life Leader'로서 SBS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새로운 재미, 놀라운 변화,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욱 밝게 만들어갑니다.



창사 25주년을 축하하며

험난한 방송 산업, SBS는 미래의 문 힘차게 열어갈 것



창사 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5년은 SBS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커다란 발전과 변화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사회 각 분야에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를 향한 걸음을 걸어왔고, 대외적으로 보면 중국과 수교이후 미국 중심의 세계가 다원화되는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방송 환경에서는 IPTV와 모바일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발전, 케이블의 약진, 시청자의 인구 통계적 변화와 같은 많은 도전과 그에 대한 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방송 산업은 지난 25년 동안 수많은 도전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TV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미디어산업의 중심축으로 변화와 발전을 선도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공

영방송의 장점들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시간이 갈수록 SBS와 같은 민방만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웠을 창사 초기를 생각하니 오늘날의 SBS가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SBS는 시청률과 작품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어떻게 보면 상호모순적인 두 가지 목표를 위해 뛰어왔고 그 결과 시사교양은 물론 예능과 드라마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정말 SBS의 모든 분들이 여의도 사옥 시절부터 치열한 프로정신으로 무장하고 더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애써 오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온 놀라운 성과를 마냥 자축하기에 지금 우리 방송계의 현실은 너무 엄중합니다. 그리스 신화 속 시시포스처럼 한 가지 고비를 넘기면 계속해서 새로운 위기와 도전을 맞이해야 합니다. 물론 25살 청년 SBS는 그동안 축적한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문을 힘차게 열어갈 것입니다. 노인은 과거에 살지만 청년은 미래에 산다고 합니다. 이제 청년이 된 SBS는 과거보다 미래를 보면서 앞으로, 앞으로 질주할 것입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SBS가 지금까지처럼 항상 반 발자국 정도 앞에서 시청자들을 기분 좋은 미래로 이끄는 역할을 계속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자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초창기 교양부문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SBS 창사 25주년을 축하드리며, 그동안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신 SBS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김형진 SBS 시청자위원(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열정으로 뭉쳤던 개국 초기... 그 불꽃을 잘 살려준 후배들에게 감사

며칠 전 여의도공원을 거닐다가 가을빛 하늘에서 춤추는 빨간 애드벌룬을 보았다. 두 등실 대형 애드벌룬에 매달린 현수막에는 SBS 출범을 알리는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눈이 아른거려 깜박하고 다시 바라보니 옛 여의도 사옥에 머물러있는 잔상이었다. 옛그제 같았던 시간은 사반세기 연륜으로 목동 오목공원 신사옥에 우뚝 서있는데...

SBS 창사 25주년, SBS 사우들의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 새로운 민영 방송시대를 연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주춧돌을 놓고 방송 인생의 피날레를 장식했던 곳이 아닌가? 개국 초기 사우들 모두가 멋진 방송 한번 해보자는 시작의 키워드는 열정이 아니었나 싶다. 열정으로 스튜디오를 만들고, 열정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열정으로 취재현장을 누볐던 것이다.

지금 그 작은 열정의 불씨를 잘 살려 꺼지지 않는 용광로로 만들었으니 후배님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펄펄 끓인 솥물로 완전체 콘텐츠를 생산해 내수시장에서 최고의 호평을 받고 해외수출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찬사를 받으니 기쁘지 아니한가!

SBS 창사 25주년, 새로운 도전을 위한 또 한 번의 출범의 자리가 아닌가 싶다. 또 한 번의 25년을 맞이할 때 눈부시게 도약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확신한다. 방송환경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SBS는 내일을 보는 눈이 있기에 친정집 근심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SBS 25주년 축제마당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있다. 이 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유공

상을 드려야 한다. SBS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데 최고의 공을 세운 시청자들이다.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준 시청자들을 위해 더 기쁨 주고, 더 사랑받는 SBS가 되어야 한다.

시청자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 청취자가 생각난다. 서울 신길동에 산다는 세득이 엄마로 기억된다. SBS 창사 1주년 생일이 자신의 첫돌 아기와 같은 날이라며 쫄깃한 백설기를 라디오 스튜디오로 보내주신 분이다. 결혼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갖게 된 아기였기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세득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했다. 지금 그 아기 세득이도 25살 아름다운 청년이 되었을 것이다.

<육룡이 나르샤>의 유아인보다 더 멋지게...

- 박동주 SBS사우회보 편집인



상식이 살아 있는 SBS... 어디 가서도 SBS 이름 대는 게 부끄럽지 않아



지금 택시 안에서 글을 쓰고 있다. 밤새 촬영하고 출근하는 길이다. 핸드폰이 자꾸 울린다. 사람들이 조연출을 찾는다.

정신없이 바쁜 입사 1년차. SBS가 25주년이 되었다는 것도 원고를 부탁받고 알았다. 촬영하러 이동하던 중에 사보 출판을 담당하는 PR팀에서 전화가 왔는데, 잘 안 들려서 뭔지도 모르고 일단 한다고 했다. '2113'으로 전화가 걸려 왔는데 막내에게 무슨 힘이 있겠는가.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메일함을 열어보고는 몇 초간 굳었다. 25년 된 SBS에 대한 생각을 쓰라니. 아직 여기가 어떤 곳인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1년 전, SBS에 정말 오고 싶었다. SBS의 교

양 프로그램들이 모든 방송사를 통틀어 제일 재밌었으니까. 특히 <그것이 알고 싶다>는 최근 몇 년 동안 안 본 회차가 없을 정도였다. 다른 방송국에서 교양국이 통째로 사라지고 정부를 대변할 동안, SBS만 비판 정신이 살아있었다. 나는 언제나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SBS가 멋져 보였다. 이곳에 가면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입사 후,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깨달았다. 조직이 뭔지, 회사가 어떤 곳인지 그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사무실에서는 매일매일 회의가 열렸고 여러 명이 머리를 맞대고 '이게 방송이 될 만한 것인가'를 고민했다.

나의 어설플 환상은 금방 깨졌지만, 실망은 아니었다. 어떤 아이템이든 '최소한의 상식'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공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억울한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 잘못된은 정확히 비판해야 한다는 상식 말이다. 1년 동안 선배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상식이 깨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SBS가 뭐 하는 곳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왜 찍어요? 어디서 나왔어요?"라는 말에 "SBS요"라고 대답하는 게 부끄럽지 않다. 그래서 SBS에 들어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 더 많이 든다. 다 썼으니 이제 정산하러 가야겠다.

- 제작본부 교양국 박연

오래 기다렸다! <일요일이 좋다-K팝스타5> 전 방송 평정한 독보적 오디션 프로 22일(일) 첫방



한 해를 기다린 <K팝스타5>가 온다. 시즌 5까지 오는 동안 대한민국에 더 이상 발굴할 인재가 있을까 의심스러웠지만, 막상 뚜껑을 열면 매번 새로운 재목들이 나타나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비슷비슷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홍수 속에서, <K팝스타>는 우리나라 대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가요계를 쥐락펴락하는 심사위원들의 수준 높은 심사평과 애정 어린 조언은 <K팝스타>를 독보적 위치로 끌어올렸다. 그 주역인 양현석, 박진영, 유희열 세 사람의 심사위원이 지난 16일(월) 목동 SBS방송센터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 모였다. 박진영은 “올해 참가자가 제일 좋다. 5년 동안 제일 좋았던 무대도 올해 나왔다”고 말했다. 유희열 역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친구들이 있다. 들도 보도 못한 괴물 같은 친구들이다”고 덧붙여 시즌 5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양현석은 “스타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음악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나오는 유일한 프로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게 너무 반갑다”고 말해,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K팝스타5>에서는 YG, JYP, 안테나 뮤직 각 사별 6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된 객원심사위원단이 시즌 4때보다 훨씬 커진 비중으로 오디션 현장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다. 객원심사위원들의 평이 소속사 대표들과 엇갈릴 때도 있고, 각 사별로 의견이 갈라질 때도 있었다고 하니, 색다른 재미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요일이 좋다-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5>는 11월 22일(일) 저녁 6시 10분에 첫 방송된다.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은 4시 50분으로 앞당겨 방송된다.

품격이 다른 시사 토크 <3시 뉴스브리핑> 편향성, 선정성, 저급한 멘트 없는 정론 뉴스쇼



‘정론 뉴스쇼’를 표방하는 <3시 뉴스브리핑>(월~금 3시부터 3시55분)이 11월 23일(월) 첫선을 보인다. <3시 뉴스브리핑>은 종편의 선정적인 뉴스쇼 공세에 맞서 SBS 보도본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뉴스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우선 <3시 뉴스브리핑>은 3無를 추구한다. 정치적 편향성, 지나치게 선정적 주제, 그리고 저급한 멘트는 사절이다. 대신 오늘의 핫한 뉴스와 세상에 회자되는 이슈를 취재기자와 각 분야의 엄선된 전문가들이 명쾌하고 재미있게 분석해 주로 재방송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던 지상파 낮 시간대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3시 뉴스브리핑> 제작진은 “인공 조미료로 범벅된 음식은 처음에는 자극적인 맛에 혹하게 되지만 다 먹고 나면 속도 안 좋고, 계속 먹다 보면 질리게 된다”며 “합성 조미료 밥상에 질리기 시작한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차린 ‘뉴스밥상’, ‘시사의 품격’을 선보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온갖 시사프로그램이 넘쳐나는 낮 시간대 ‘정론 뉴스쇼’를 표방하는 <3시 뉴스브리핑> 신설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진행을 맡은 배재학 앵커는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지상파만의 품격을 보여줄 것이다. <나이트라인> 등 8년째 앵커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낮 시간대 새로운 형태의 뉴스버라이어티쇼를 진행하게 돼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3시 뉴스브리핑>은 고품격 뉴스에 목말랐던 시청자에게 새로운 볼거리, 들을 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바람의 학교> 세상에 없던 학교를 만들다 학업중단 위기의 아이들을 위한 29박 30일 교육실험 프로젝트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바람의 학교>가 11월 22일부터 4주간 일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바람의 학교>는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전국 16명의 청소년들과 학교가 변해야 한다고 말하는 공교육 교사들이 모여 새로운 교육을 실험하는 프로젝트로, ‘모두의 바

람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의미와 ‘바람이 부는 곳이면 어디든 학교다’라는 의미, 두 가지 뜻을 내포한다.

작년 한 해에만 고등학생 2만 5천여 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났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고, 역지로 학교에 가긴 가지만 교실에서 엎드려 잠만 자는 것이 전부인 무기력한 아이들도 많다. <바람의 학교> 제작진은 교실 안에 숨은 학교 부작용, 대한민국 전반의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마을. 6개의 오름에 풍력 발전기가 더해져 바람 소리가 들판을 가득 채우는 이곳에 세상에 없던 새로운 학교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소년교도소에서 갓 출소한 아이부터, 탈북, 다문화, 중2때 자퇴하고 홈스쿨링을 택한 아이, 수업 일수 부족으로 자퇴 위기에 놓인 아이, 수학은 4점이지만 기타 칠 땀 행복한 아이까지 사연은 다양하지만 하나같이 ‘학교는 쓸모없다’고 입을 모으는 16명의 개성 강한 청소년들이 <바람의 학교> 입학생으로 찾아왔다.

학교가 변해야 한다고 말하는 공교육 교사 5명과 아이들의 멘토로 참여한 서울대 사범대생들을 주축으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실현시키기 위해 가수 윤도현, 사진작가 조세현, 디자이너 고태용, 그래픽티 아티스트 범민, 그리고 가시리 마을 주민들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무기력한 아이들을 깨우기 위한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총 26명의 일반인 출연자와 50여 명의 제작진이 국내 최초로 도전한 29박 30일의 100% 리얼리티,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도전했던 무모한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을까?

창사25주년 특별기획 **희망TV SBS**, 상반기 대비 후원진수, 금액 크게 증가

‘엄마 펀드-희망 한끼’ 빛속에도 환아 엄마를 위한 기부 줄 이어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희망 TV SBS>(연출: 김태현, 성기훈)가 지난 11월 13일(금), 14일(토) 양일간 방송되었다. 이를 동안 다양한 모금형식을 통해 <희망 TV SBS>에 모인 월 3만원 정기후원은 12,000건 이상으로, 2015년 상반기보다 약 4,000여 건 정도 늘어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86억 원(정기후원 기준)이 넘는 모금 성과를 거둔 것이다.

배우 김성령, 류수영과 아나운서 김주우, 3명의 MC들은 <나눔 토크쇼 함께>에서 국내외 소외된 아이들의 사연을 전했다. 대한민국 대표 엄마 배우 고두심, 정애리, 아랍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전광렬과 유준상, 손담비, 이지훈, 김호진, 김정난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셀럽 8명이 출연해 직접 목격한 아프리카의 참상을 소개했다. 그들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케냐, 니제르 등

7개국의 현실을 소개하며, 아프리카 아이들에 대한 도움의 손길을 구했다. 또한 희소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내 환아들의 사연도 소개되었다. <궁금한 이야기 Y>의 스토리 텔러 허수경이 염색체 이상, 다발성 기형 등 총 3명의 환아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했다.

이번 모금 방송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엄마펀드, 희망 한 끼’였다. MC 정준하가 명동에서 이연복, 에드워드 권, 레이먼 김 등 10명의 스타 세프와 함께 생방송으로 도시락을 통한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환아를 돌보고 있는 엄마를 위한 모금방송으로, 도시락을 사면서 기부도 하는 새로운 형식의 기부 형태를 선보인 자리였다. 전화를 통한 기부 형식에서 벗어나 젊은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SNS를 적극 활용하고 직접 찾아오게 하는 형태의 기부를 진행한 결과, 빛속에서도 2억 6천만 원이 넘는 기금이 조성되었다. 이 돈은 전액 희소난치병 환아의 엄마들의 건강 및 영양관리, 심리치료 지원에 쓰인다.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희망 TV SBS>는 새롭고, 다양한 형식의 나눔을 전달하며 제작진과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나갔다. 내년에 20주년을 맞이하는 <희망 TV SBS>가 더 새롭고 뜻 깊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인터뷰 이 사람

<별그대 특별전> 전시권 베이징 수출...상하이 등 중국 전역과 제주도 순차 성사 전망

문화사업팀 김선동 팀장(사진 가운데)

SBS는 ‘CK엔터테인먼트그룹’과 <별에서 온 그대> 중국 전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1차로 내년 3월 베이징에서 대규모 세트 전시장을 열기로 했다. 이어 상하이 등 중국 주요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제주도 사업권 계약도 곧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을 주도한 문화사업팀 김선동 팀장은 <별에서 온 그대 특별전>과 <방송체험전>의 성공적 개최로 한류 문화 확산에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 12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주는 한류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방송 세트장을 재현해 전시하는 사업은 SBS가 처음이다.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나?
2014년 2월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 종영 이후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별그대> 촬영장을 찾아온다는 뉴스를 접하고, 실내 세트장을 재현하면 인기를 끌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다. 처음에는 뿌피프랑스나 남산, 용인민속촌 등 촬영지에 세트를 짓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시설과 교통 여건 등이 좋은 DDP에 전시를 하게 되었다.

당시 SBS는 그룹차원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SBS를 주축으로 콘텐츠허브와 A&T가 자금과 인력, 세트 제작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함께 참여하고 투자해 이런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다.

지난 해 DDP 전시 때부터 중국을 비롯해 대만, 태국 등 해외는 물론 제주도에서도 이 전시 사업을 해보겠다는 사업자들이 많이 찾아와 솔한 협상을 벌였고, 중국의 사업자와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전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취소되는 곡절도 겪었다.

투자금이 1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데다 세트 전시라는 초유의 비즈니스 모델, 더욱이 규제가 많은 중국에서 사업을 성사시키기란 결코 쉽지 않아 그동안 가슴앓이를 해야 했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최대 시장에서 한류 최고의 콘텐츠 전시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신이 사업자와 투자자를 움직였고 중국은 물론 제주도 사업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조만간 좋은 소식을 연이어 전하게 되리라 믿는다.

올해 메르스 등 악재가 많았는데 문화사업팀의 성과는?

상반기엔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6월부터 불거진 메르스 사태로 <별그대> 킨텍스 전시와 뮤지컬 공연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그러나 팀원들이 일사불란 혼신의 힘으로 모든 사업을 정상궤도로 올려놓았고 전시 사업까지 성공시키기에 이르렀다. <별그대> 전시



국내외 사업권 판매의 모델하우스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그동안 투자금을 연내 모두 회수해 흑자 전환하는 것은 물론 세트 제작비 등으로 대규모 추가 수입도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별그대> 베이징 전시 사업은 라이선스 대금과 별도로 수익배분도 받게 돼 있어 최대한 지원해 흥행도 성공시켜야 한다. 그래야 제2, 제3의 전시 사업도 물꼬를 틀 수 있다. 지난 가을 뉴스앵커 및 기상캐스터, K-POP 체험, <런닝맨>, <정글의 법칙> 등 예능 프로그램 등을 주제로 한 <방송체험전>을 킨텍스에서 시험적으로 개최했다. 이 또한 메르스 여파로 폐쇄 후 재개장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학생과 중국 관광객 유치 등 나름대로 가능성을 확인했다. 전시 기획과 품질을 업그레이드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 역시 중국 사업자와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사업도 성사시키고 개인적으로 수상도 했다. 겹경사를 축하드린다.

회사와 팀원을 비롯한 사우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위로와 용기를 주신 분들, 이 사업이 자리를 잡도록 관심과 애정으로 질책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제 첫 발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 지난한 과정에서도 많은 지원과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배출한 달인만 2,632명! 감동과 화제의 <생활의 달인> 10주년... 23일, 30일 특집 방송



<생활의 달인>이 11월 9일(월) 500회를 맞았다. 올해는 2005년 첫 방송을 시작한 <생활의 달인>이 1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하다.

비록 화려하거나 주목받는 일은 아닐 지라도 자신의 일터에서 부단한 열정과 노력으로 달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온 <생활의 달인>은 국민적인 사랑을 받으며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생활의 달인>이 그동안 배출한 달인은 무려 2,632명으로, 단순한 기술이 아닌, 그 속에 감춰진 달인들의 애환까지 녹여내면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왔다.

10년 동안 <생활의 달인> 제작진은 달인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헤맸다. 그 노고를 인정받아 그동안 한국프로듀서 외주부분 작품상, 여성민우회 푸른미디어상, 노동문화상 노동인론부문 대상, 광고주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 등 굵직한 상을 휩쓸기도 했다.

<생활의 달인>은 10주년 특집으로 수많은 맛의 달인 가운데 10대 맛집을 엄선해 방송한다. 박미선과 함께 특집 방송의 진행을 맡은 방송인 김구라는 “대한민국 먹방 프로그램은 <생활의 달인> 전과 후로 나뉜다. 기존에는 단순한 맛집 소개에 그쳤다면 <생활의 달인>은 음식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과 달인의 애환을 깊이 있게 조명했다”고 평가했다. 10주년 특집 방송은 11월 23일과 30일(월) 두 차례에 걸쳐 방송된다.

UHD 공로 조삼모 차장 '방송기술대상' 수상



기술기획팀 조삼모 차장이 11월 10일(화) 저녁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거행된 '2015 방송기술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방송기술대상'은 전국 지상파 TV 및 라디오, 케이블, 위성방송 등 44개 방송사 4,500여 명의 기술인들로 구성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매년 방송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조삼모 차장은 700MHz 대역 차세대 지상파 방송용 주파수 확보와 국내환경에 적합한 지상파 UHD 실험방송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조삼모 차장의 이번 방송기술대상 수상은 수년 동안 진행되어 온 국내 700MHz 대역 주파수 용도 결정 과정에서 지상파 방송의 대표로 나서 국민, 국회, 학계 그리고 정부를 설득하는 데 전사적인 노력으로 앞장서 온 SBS의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드림 워드 버디'로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설립



'SBS와 KPGA가 함께하는 드림 워드 버디' 기금과 경상남도 산청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남도 건축사회의 후원을 통해 설립되는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착공식이 11월 2일(월)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에서 열렸다. SBS는 KPGA와 함께 국내 개막전인 '제8회 롯데마트 여자오픈'부터 의미 있는 자선활동을 펼쳤다.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29명의 선수들은 매 대회, 각 라운드에서 기록한 버디 개수만큼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SBS는 각 라운드 두 번째 파3 홀에서 버디 1개당 10만 원의 기부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금을 마련했다. SBS와 KPGA 선수들이 함께 마련한 '드림 워드 버디' 기금과 기타 후원 기업들의 기금이 더해진 적립금은 아이들의 소중한 보금자리 마련과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우리 프로그램은요~

요일 별로 진행자가 다른 7인 7색 전문 음악방송 <애프터클럽>

파워FM(수도권 107.7MHz)

월~일 오전 03:00~04:00



매일 새벽 3시부터 한 시간 동안 107.7 파워FM에서 전파를 타는 <애프터클럽>은 각 장르 최고의 뮤지션들이 하루씩 돌아가며 진행을 맡는 '7인 7색'의 음악방송입니다.

월요일에는 2013년 한국 대중음악상 수상 뮤지션 선우정아가 [Behind Tour]라는 타이틀로 음악이 우리 귀에 닿기까지 거치는 수많은 여정을 DJ만의 시각으로 이야기하고, 화요일에는 지난 해 '썸'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던 국민 썸남 정기고가 [Come To My Room]으로 찾아옵니다. 정기고가 직접 휴대전화로 자신의 일주일을 스케치하고, 청취자들의 한 주를 토닥거리는 속 깊은 방송이죠!

수요일에는 김예림이 [Voice Mail]이란 타이틀로 그녀가 직접 쓴 오픈링과 함께 매주 기발한 주제로 음악 정보를 전달하고, 목요일에는 '멋진 하루', '허삼관 매형기' 등의 영화음악을 감독한 푸디토리움 김정범의 [야간공작소]가 방송됩니다. 이어 금요일에는 한국 100대 명반에 이름을 올린 DJ 소울스케이프가 재즈, 펑크부터 독일, 아프리카 음악까지 국경과 장르를 뛰어넘는 디제잉을 선보이는 [360 라디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말, 토요일에는 롤러코스터의 전 멤버이자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등 다수의 히트곡을 작곡한 히치하이커의 리믹스 라디오 [Nightmare]가 방송되고, 일요일에는 한국 인디 신의 팝-모던 록 흐름을 선구한 독보적 싱어송라이터 김정치마의 [Open All Night]에서 한국과 미국을 넘나드는 다양한 선곡과 시크하지만 재치 있는 DJ의 멘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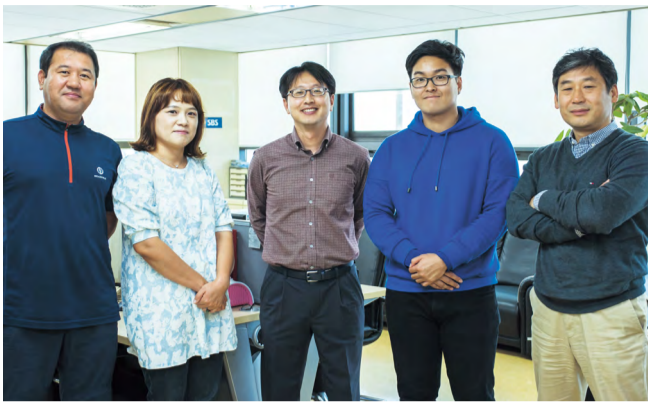
이처럼 <애프터클럽>은 요일별로 DJ들이 직접 음악 데이터 베이스를 큐레이션함으로써, '지금 여기' 음악의 맥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일례로 김예림과 빈지노의 콜라베이션 작업 등이 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애프터클럽>은 프로그램이 런칭한 지 2년을 맞아, '애프터클럽 데이'라는 타이틀로 오는 11월 19일에 이태원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 DJ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콘서트를 엽니다. DJ 모두 각자의 음악 신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뮤지션들이기에, 이들의 합동 공연이 주는 의미가 남다를 겁니다.

- 연출 강태우(라디오센터 라디오2CP소속)

지국 사람들-강릉지국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근무하니 좋겠다고요?”



강릉시 옥천동 한화생명빌딩 8층에 자리한 SBS 강릉지국의 28명 사무실에는 취재기자 조재근, 카메라기자 허춘, 행정 이경은, 오디오맨 장승민, 운전기사 김명철 등 5명이 오순도순 근무하고 있다. 조재근 기자는 “몇 명 안 되는 인원이 하루 종일 붙어 지내기 때문에 화합이 중요하다. 우리 지국 식구들은 서로 호흡이 잘 맞는다. 아마 지국 중에서 분위기는 최고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강릉지국은 강원도 전역을 관할한다. 지역 특성상 산에 오를 일이 많아 사무실 한편에는 십여 벌의 등산복이 걸려있고 등산화도 여러 켤레가 놓여 있다. 겨울에는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대설 취재 때문에 아이젠과 스패츠, 등산스틱이, 여름철에는 바다와 강, 수해 취재를 위해 가슴까지 올라오는 고무장화도 구비돼있다. 며칠 전만 해도 탐방로가 아닌 곳으로 등반하는 사람들을 취재하기 위해 설악산을 7~8시간 오르내리다가 운동화 차림의 입사 2주차 오디오맨이 바로 회사를 그만둘 뻔 했다. 배를 탈 일도 많은데 하필 허춘 카메라기자는 뱃멀미가 심하다. 모든 것을 다 비워내야 비로소 조금 진정이 된다하니 수원 출신인 허춘 기자에게 바다는 낭만만은 아닐 듯하다.

강릉지국은 1995년에 생겼다. 2001년까지는 오롯이 강원지역을 커버하다가 강원민방이 생기면서 보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도 지역이 넓다보니 기자 한 명, 카메라기자 한 명이 취재하기에는 부담감이 크다. 타 방송사는 강원도에만 2~3개의 방송국을 운영하며 30~50명의 기자들이 취재하는 일을 교대인력도 없이 감당해야 한다. 대형 산불과 폭설처럼 큰 재난이 발생하면 본사와 전국의 지국에서 지원인력이 오지만 웬만한 상황에서는 한 팀이 일당백의 정신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한다.

그래도 취재를 나가면 SBS를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목숨까지 걸고 취재에 매달린다. 2002년에는 태풍 루사로 인해 강릉시민 대피령까지 내려졌는데도 산사태로 매몰된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경찰 저지선을 뚫고 비와 돌과 흙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1차 산사태 지점 바로 밑까지 들어갔다. 조재근 기자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그날 하루에만 세 번이나 했다고 한다. 생명보험은 필수이고, 잘 때도 쉴 때도 휴대전화를 놓지 못하는 휴대전화 분리불안증은 모든 기자가 다 그렇겠지만, 휴일에도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것과 정년 때까지 일선에서 뛰어다녀야 하기 때문에 체력을 기르는 일은 지국 기자들의 운명이다. 50이 넘 모래인 허춘 기자는 10kg가 넘는 ENG카메라를 메고 설악산을 1년에 두어 번씩 오르내릴 때, 혹은 다리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취재를 다닐 때면 눈물 콧물 다 흘리며 극한적인 체력의 한계를 느끼지만, 숙명이거나 하면서 평소에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체력을 기른다고 한다. 김명철 기자의 특기는 고무장화 수선과 전선 납땜이다. 고무장화 같은 취재 용품에 대한 지원이 풍족하지 못해서 장화에 구멍이 나면 고무조각을 잘라서 접착제를 바른 뒤 아령으로 눌러 붙여 재활용하고, 마이크나 조명의 전선이 끊어지면 납으로 용접하는 일 등은 손재주가 좋은 운전기사의 몫 이란다.

조재근 기자는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소속감과 외로움이다. 강릉에도 SBS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주시고 제보거리가 있으면 연락해 달라. 단순한 안부 전화도 좋고 강원지역 관광지나 맛집 정보를 구하는 전화도 괜찮다”며 웃었다.

창사 25주년 SNS 이벤트 수상작

1등 뉴미디어부 <스브스뉴스>



2등 PR팀



3등 A&T 아트2팀(분장)



3등 라디오2CP <호란의 파워FM>



디지털 시청자와 소통하다

홈페이지 속에 또 다른 드라마가...<마을-아치아라의 비밀>



수목드라마 <마을-아치아라의 비밀>(극본 도현정, 연출 이용석)이 12월 3일(목)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아치아라 마을'을 둘러싼 미스터리에 대한 긴장감과 공포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홈페이지(tv.sbs.co.kr/village2015)에서는 시청자들이 함께 추리하며, 서로 저마다의 논리로 범인을 밝혀내고, 날카로운 추적을 해가고 있다. 이같은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에 이용석 감독은 직접 시청자게시판에 “게시판의 칭찬과 격려 고맙다”라는 글을 남겼고, 조연출 이단 PD는 촬영 현장 뒷이야기를 담은 'PD노트:아치아라 표류기'를 공개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더욱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을> 제작진은 방송 초기, 직접 헬리캠으로 촬영한 사진을 분석하여 전체적인 마을 구도를 잡아주었고, 이 구도를 기초로 SBS콘텐츠허브에서는 현실감 있는 마을지도를 완성하여 시청자에 공개하는 한편, 마을을 지키는 장승 캐릭터를 제작하여 친근감을 더한 콘텐츠들을 공개하고 있다. <마을> 홈페이지에서는 홈지기를 '마을지기'로 칭하고, 마을을 지키는 장승을 마을지기로 캐릭터화 하여 홈페이지 내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마을지기 X-파일' 메뉴를 통해 전 회차 압축보기, 마을 모의고사, 호두소리 등의 특화 콘텐츠를 공개하고 있다.

<마을-아치아라의 비밀>은 박영수 EP 이하 이용석 감독, 이단 PD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청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웰메이드 명품드라마로 사랑받고 있다.